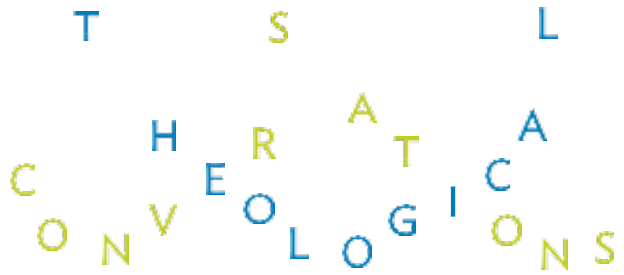

언약의 참 의미를 찾아서: 청교도 언약사상, 민주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소고

Redeeming Covenant: A Critical Reflection on Puritan Covenant Theology, Democracy, and Racism in the U.S.

이학준 Hak Joon Lee
풀러 신학대학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언약사상은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의 중심 신학 사상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언약 사상이 많은 현대인과 젊은이들에게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언약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상징과 개념이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의 탈권위적이고 해체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성경의 많은 사상들이 본래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언약과 계약의 구분이 현대에 와서 매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언약이라는 개념이 절차성과 법적 과정을 중시하는 지난한 과제로 여겨지면서, 언약은 관료제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현대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보다 더 심각한 언약사상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기독교 그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언약사상이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선민사상과 더불어 여러 인종차별주의 (예: 미국의 국수주의,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등)를 오히려 정당화하는데 신학적 도구로 오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평적 관계와 개인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젊은(기독교인) 세대의 정서에는 도저히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약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과거 수치스러운 서구 식민주의의 신학적 도구인가? 오늘에는 유용성을 잃어버린 구시대의 산물인가? 아니면 새로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신학적 과제인가?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아, 이런 언약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오늘날 언약사상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서 특히 언약 사상과 인종차별주의와의 관계를 청교도들의 신앙과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언약사상과 인종차별주의와의 관계는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들이 아직도 직접-간접으로 겪고 있는 주변화와 인종차별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그 시사성이 크다고 본다.

그동안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언약사상이 영국-미국의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에 미쳐 온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방대히 연구해 왔다. 종교개혁 당시 쯔빙글리와 캘빈으로부터 재발견된 언약사상은 영국과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 의해 신학적으로 더 심화 발전되었다. 사실, 청교도들은 회중교회라는 형식을 통해 민주적 대의주의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republican system 제도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교도들의 조직과 질서는 모든 인간이 신으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아 평등하다는 신념에 근거하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권리 장전과 독립 선언서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교도의 대의 민주주의 사상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유대인 정치학자 대니얼 엘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근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16 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으로부터, 그 가운데도 특히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서양세계를 대중적 자치로 가도록 길을 열어 준 신학과 정치를 발전시킨, 개혁주의 개신교로부터 시작되었다.[1]

> 언약신학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들의 신앙의 주춧돌로 삼은 집단들이 또한 가장 앞서 인간의 자유에 헌신하고 이의 진보에 공헌했던 집단들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2]

이런 청교도들의 언약사상에 근거한 종교적 열정이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사실은 18 세기 미국을 여행했던 프랑스 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에 의해서도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3]

---

[1] Daniel J. Elazar, *Covenant and Commonwealth*, The Covenant Tradition in Politics, vol.2,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6), 312.

[2] Ibid., 151.

[3]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http://seas3.elte.hu/coursematerial/LojkoMiklos/Alexis-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언약사상을 남용해서 행한 인종차별정책은 "인종차별이 미국의 원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미국의 인종화 racialization 와 인종분열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백인특권과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종교적, 정신적 뿌리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에서 청교도들이 언약을 남용하여 행했던 악한 인종차별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인종차별을 위한 언약사상의 오용은 청교도 지도자였으며,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초대 주지사로 총 12 번 주지사직을 역임했던 존 윈드롭 John Winthrop 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1630 년 영국을 떠날 당시 그는 아벨라호 선상에서의 청교도 이민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 즉 "새로운 땅" 식민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기독교 사랑의 모범 a model of Christian charity"을 서로 실천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어떤 인간도 자신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낫거나, 자신의 힘으로 부유한 사람이 없기에, 모든 일을 창조주의 영광과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건설할 사회가 "산 위에 세운 마을 city upon the hill"처럼 세계에 공헌할 것을 역설했다.[4]

이렇게 독실한 청교도 신자로, 뉴잉글랜드의 정신적, 정치-문화 제도의 기초를 세운 윈드롭이었지만, 그의 타인종에 대한 견해와 정책은 그가 아벨라 선상에서 강조한 성서적 가치와는 정반대였다. 스스로 노예 소유자였으며, 주지자 재임 중 최초로 노예무역을 공인했을 뿐 아니라, 1641 년에는 북미주 최초로 노예제도를 입법화했다. 심지어 그는 백인들이 가지고 온 홍역과 수두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며 이를 청교도들에게 식민지에서 확장의 기회를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다.[5] 이런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바탕으로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의 몰살과 흑인 노예제도의 정당화는 물론, 뉴잉글랜드와 카리비안, 그리고 아프리카 서부의 삼각 지대를 이용한 노예 무역에 적극 가담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다.[6] 지금도 안티구아 Antigua 에는 부지사로 일하며 여러 노예와 농장을 소유했던 윈드롭의 아들 사무엘 윈드롭의 이름을 딴 윈솝 만 Winthorp Bay 이 있으며, 그의 형제 존 윈드롭 2 세

---

de-Tocqueville-Democracy-in-America.pdf

[4] http://winthropsociety.com/doc_charity.php

[5] Richard A. Bailey, *Race and Redemption in Puritan New Eng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9.

[6]청교도들은 마찬가지로 흑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꺼렸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면 그들과 같은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코넷티컷의 주지사로서 자신의 소유지에 많은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위의 사실들은 노예 소유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화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담긴 엄숙함에 바탕을 둔 타협 없는 신앙의 실천과 모범을 강조하지만, 타인종에 대해서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잔인함을 행한 모순과 이중성이 대대로 뉴잉글랜드 청교도 후손들을 통해 내려간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는 조나단 에드워드 Jonathan Edwards 도, 그의 여러 창조적인 신학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사회적으로 옹호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7] 그와 그의 부인은 노예를 사고파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에드워드의 태도는, 노예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외에는, 당시 사회의 일반적 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즉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른 인종들에게 사회 내에서 다른 신분과 위치를 갖도록 정하신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노예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이 고민한 윤리적 문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가르침처럼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노예주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8]

또한, 그의 사촌이자, 제 1 차 대각성 운동 시작 시 가장 유명했던 에드워드의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를 기록했던 롱메도우 Longmeadow 지역의 청교도 목사였던 스테판 윌리암스의 혹독한 징벌 때문에 두 명의 흑인 노예들이 며칠 간격으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9]

불행히도, 이렇게 시작된 언약사상의 오용은,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에 종교적 원천성 geneology 을 제공하였고,[10] 19 세기에는 미국의 식민지 확장주의를 위해 만들어낸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바탕이 되었다.[11] 이후에도

---

[7]노예 문제에 관한 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루터의 소위 두 왕국이론과 비슷하게, 영적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이분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8] 노예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때부터인가 아니면 인간 타락이후부터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란이 있었다.

[9] Bailey, *Race and Redemption / Puritan New England*,106-107.

[10] https://earlyuslit.wordpress.com/2013/08/09/ideology-of-superior-identity-in-john-winthrops-a-model-of-christian-charity/

[11] "명백한 운명"이란, 미국은 전세계에 정치적-도덕적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선택받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이 정해준 운명이라는 이데올로기로써, 청교도의 언약사상과 역사적 연결성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의 근간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로 표현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 많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까지 전수되었다.

미국 밖에서 이런 언약사상을 남용한 예를 찾자면, 대표적으로 남아공의 아파타이드 apartheid 를 지지한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Dutch Reformed Church 전통을 들 수 있다. 남아공 개혁교회는 청교도와 유사하게 언약사상을 이해했으며 특히 바벨탑 사건의 결과 하나님의 징벌로 인류가 분리된 것처럼 흑인,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공고하게 뒷받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지금도 이스라엘 내의 종교 근본주의자들과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예들은 언약사상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 인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교도들이 보여준 개혁주의의 언약사상은 백인들 집단 내에서는 성서의 가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실현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인종적 타인들 others 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타성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권위주의, 전통적 구습, 봉건주의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또 다른, 아니 더 흉악한 인종적 계급주의를 탄생시켰다. 자연법 natural law, 자연적 인권 natural right,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도, 비백인, 비기독교인의 자연적 인권과 존엄성은 완전히 무시한 과오를 저질렀다. 이들은 보편적, 우주적 규범과 계율을 백인들 내의 규범으로 한정시키고, 타인종에게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 성화를 사회 전반에 실천하라고 외쳤지만, 인종 관계에서의 성화가 무엇인지를 숙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인권,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언약사상이 왜 이처럼 모순적으로 노예제도나 원주민을 말살시키는 인종차별주의의 도구로 사용됐는가? 언약 사상은 정말로 인종차별주의와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만 이해돼야 하는가? 우리는 인권존중과 인종차별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이러한 청교도 신앙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언약은 진정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신학적 개념인가?

우리는 언약사상의 모순을 단지 신앙의 실천, 또는 성경 말씀의 적용단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즉, 이런 과오는 단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탐욕의 결과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성서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있어 신학적인 한계도 같이 있다고 본다. 즉

개혁주의의 언약사상 내에는 아직도 명쾌히 정리되어야 할 신학적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신학적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 청교도들의 언약사상이 인종주의의 신학적 근거가 된 것은 칼빈의 선민주의 election, 섭리론 providence, 예정론 predestination 과도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면,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모두 이루진다는 사상과,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사고는, 신학적 범주를 넘어 사회적 관계 특히 인종 관계에 적용될 때, 백인 청교도들 자신을 예정된 사람들, 타인종은 저주받은 자들, 그리고 "신천지" "새 대륙"의 개척과 정복을 이미 신의 섭리 속에 이루진 일이라는 신학적 정당화를 만들어 내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 개념이 충분한 사고와 비판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회문제에 적용될 때 초래되는 엄청난 과오를 보게 된다. 예정론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 지나치게 무리하게 그 적용을 시도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집단이익을 위해 오용될 때, 복음의 본질과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예정론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새 이스라엘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규범과 가치,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출애굽-광야-가나안으로 이어지는 모세의 언약 내러티브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이해를 신앙적-상징적인 내용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으로 적용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근거로, 자신들은 이스라엘로, 미주 대륙을 가나안으로, 원주민을 가나안 원주민으로 직접 결부시키고, 후자를 정복과 멸절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모세의 언약 사상을 인종차별주의와 원주민 말살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수단화하여 버렸다. 그 역사적 폐해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다.

청교도들의 이런 신학적 과오는 언약을 성서 전체의 흐름에서 유기적,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가나안 정복 스토리 중심으로 자신들의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려고 했다. 사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정치와 사회 제도, 법에 대한 다양한 함의들은 성서 내에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교도들이 시내산 언약에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성경의 언약사상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통전적인 틀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선택적 해석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사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귀결된다. 새 언약은 최종, 완성의 언약이자 종말론적 언약이다. 이전의 언약은 부분적이고 과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구약의 언약에

담겨있는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 아래에서 재해석하고자 한 것이 신약의 작업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일이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민족과 특별한 시대적 상황에 주어진 사건이기에, 어느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과 같은 사회적 집단의 편익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이 없는 것처럼(갈 3:28), 모세의 언약을 뛰어넘어, 창세기 1-2 장과 창세기 12 장 (아브라함)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일원이 되는 전인류적 공동체 언약으로, 어떤 존재론적, 섭리론적 인종차별을 극복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특히 청교도들의 언약에 대한 이해는 신학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청교도들의 성서의 언약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배타적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한 백성이라는 사고는 자신들이 타인종에게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모든 권력과 특권을 자연스레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할 언약이 오히려 악의 정당화, 특권의식, 잘못에 대한 종교적 면제의식, 양심 마비를 가져온 것이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갖는 신학적-윤리적 의미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세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사상을 자신들의 정치, 사회, 경제, 교회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구원"이라는 영적 문제로 국한되고, 사회윤리적으로는 주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인종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새 언약사상이 가진 보편적이고 전인류적인 평등주의를 저버리고, 인류사상 가장 잔혹한 형태의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3) 청교도들의 과오는 언약사상의 핵심과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언약사상은 인종주의가 아니라 정반대로 언제나 해방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언약사상은 성경의 기본 내러티브와 궤를 같이 하게 되며, 본질적으로 "해방-회복"이라는 축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그것은 언제나 해방에서 또한 회복에 이르는 구조를 가진다. (예: 창조 언약: 혼돈 chaos → 질서 comos; 노아의 무지개 언약: 홍수(혼돈)→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최종적 약속; 아브라함 언약: 바벨탑 이후의 혼돈과 파편화 →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에덴 공동체에 대한 약속; 모세의 언약: 애굽 종살이 → 약속의 땅; 예수님의 새 언약: 사탄의 세력 → 새 창조 new creation). 이런

의미에서 언약사상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 liberation from 과 어떤 것으로의 해방 liberation to 이라는 양방향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12]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부정에서 긍정으로, 혼돈과 흑암에서 창조와 광명과 질서, 노예 상태에서 제사장 나라, 사탄의 지배에서 새 창조로 변화, 재구성시키신다. 그러기에 언약은 악, 불의, 흑암에 대한 심판(해방)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회복과 만듦으로 진행하게 만든다. 따라서 앞에서 계속 살펴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언약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재와 인종차별에 항거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언약사상은 차별과 억압이 아니라 해방과 회복으로 그 방향이 움직이는 것이 본질적이다.

우리가 만약 언약사상으로부터 인류를 해방 또는 회복시키는 역사적 사례를 찾으려 한다면, 그 대표적인 예를 마틴 루터 킹의 시민인권 운동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킹 목사는 현존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현실과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의 폐해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영적 문제로 이해하면서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킹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는 지극히 반성서적이며 반언약적이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윤리적인 가치와 원칙들(예: 인간 존엄성, 비폭력, 사랑, 정의, 평등 등등)을 주창함으로 인간 해방과 인종차별주의 철폐 운동에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마틴 루터 킹은 당시 억압받던 흑인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우주적이며 종말론적인 사랑의 공동체 the beloved community 를 사람들이 꿈꿀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마틴 루터 킹은 예수님의 새 언약에 나타난 것처럼 전 인류를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원으로 이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해방과 회복의 구체적인 운동으로 그의 신학 사상을 역사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언약사상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언약은 미국 정치 종교 사회사에 있어 도덕적으로 애매하고 모순된 역할을 해왔다. 어떤 면에서 언약신학은 미국의 최고(선)와 최악 된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 준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요구하는 그 우주적 포괄성과 청교도들의 인종차별주의의 큰 간격은 미국의 영혼(소울)안에 있는 균열 fracture 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나 할까...

---

[12]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출판될 저자의 *New Covenant Ethics* 라는 책에서 다룰 예정이다.

미국에 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그들을 무조건 영웅화하거나, 성자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오늘날 미국의 인종주의의 골수에 청교도들의 잘못된 백인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 보수 백인 기독교인들 속에 현저히 남아있어) 미국의 국수주의와 외교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이런 사고와 동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나하면, 이런 백인 선민의식은 인종차별에 종교적, 신적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조차 시도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런 사이비 언약사상은 우리 동양인과 같은 유색인종들을 (미국에서 태어나 수 세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이방인) 이등 시민으로 만들어 버린다.

언약은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인가를 결정해 주는 테두리이다. 그러기에 그 매력과 심리적 영향력이 엄청나다. 인종차별주의는 언약의 구성원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분리시켜, 다른 사회학적 범주로 대체할 때 야기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기준은 어떤 정치적, 사회, 인종적인 집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언약이 주는 정체성은 소중하고 고귀하다. 가장 깊은, 원초적이고 근본적 관계, 즉 나의 창조자와 나와의 관계라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하지만 이 관계는 어느 특정인, 계급, 인종, 성별에 한정된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청교도들의 죄악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결정되는 언약의 테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인종적 테두리로 바꿔 버린 것이다.

더우기, 인종차별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은 서로 상반된 것이다.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배타성이나 특권의식, 계급적 구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된다. 특히 성찬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권위구조(계서제)와 구분된 인간의 동등성, 존엄성, 그리고 상호의존과 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친다.

청교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릇된 언약주의에 바탕 둔 인종차별주의는, 오늘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백인 국수주의 white nationalism 의 확산에서 보듯이 아직도 미국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해방과 공동체 회복을 핵심 메시지로 하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독교 윤리의 기본틀로 이해할 때, 21 세기에 언약

사상은 오히려 그 창조적 적합성과 윤리적 역동성을 더 하게 될 것이고, 압제와 차별의 수단이 아닌 억압과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모든 인류와 창조물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고 남용된 언약사상을 예수님의 보편적, 포괄적, 종말론적 언약 안에서 신학적으로 바로 잡을 때, 개혁교회의 언약사상은 인종차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해방과 새 공동체를 주창하는 귀한 복음적 메시지로 21 세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